

방문객 - 정현중 (현대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나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광휘의 속삭임>

\*갈피: 겹치거나 포갠 물건의 하나하나의 사이. 또는 그 틈

\*필경(畢竟): 끝장에 가서는.

\*환대(歡待):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첫 걸음.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작품이 보여주는 장면]

- 이 시는 누군가의 방문이라는 일상적인 사건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화자는 한 사람의 방문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그 사람의 모든 시간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만남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의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화자의 따뜻한 태도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만남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작품 분석]

- 1) 제1-2행: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이 부분은 일상적인 방문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며 시작합니다.
  - "어마어마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만남의 중대함을 강조합니다.
- 2) 제3-8행: "그는 / 그의 과거와 /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짧은 시행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 한 사람의 존재를 시간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 "일생"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 인간의 총체성을 강조합니다.
- 3) 제9-15행: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이 오는 것이나 / ... /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부서지기 쉬운 마음"은 인간의 연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본질을 상징합니다.
  - "바람"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상징합니다.
  - "환대"라는 표현을 통해 진정한 만남의 자세를 제시합니다.

[작품의 주제]

- 이 시는 "한 사람의 방문이란 그의 전체 삶과 내면을 포함하는 소중한 만남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 이러한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독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걸음. 작품의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1. [O/X]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표현은 방문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다.<sup>1)</sup>
2. [O/X] 시의 화자는 방문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sup>2)</sup>
3. [O/X] "바람"은 방문객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상징한다.<sup>3)</sup>
4. [O/X] "부서지기 쉬운 마음"은 방문객의 연약함과 불안정함을 의미한다.<sup>4)</sup>
5. [O/X] 이 시는 계절의 변화나 자연의 모습을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다.<sup>5)</sup>
6. [O/X] 이 시는 주로 짧은 시행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sup>6)</sup>
7. [O/X] 이 시에서는 동일한 단어나 구문의 반복이 운율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다.<sup>7)</sup>
8. [O/X] 이 시는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8)</sup>
9. [O/X]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표현은 방문이라는 일상적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sup>9)</sup>
10. [O/X] 시인은 짧은 시행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sup>10)</sup>
11. [O/X] 이 시는 현대 사회의 단절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이 없다.<sup>11)</sup>
12. [O/X] 동일한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각운을 형성하는 것은 이 시의 특징이다.<sup>12)</sup>
13. [O/X] 이 시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나열하고 있다.<sup>13)</sup>

셋째 걸음. 빈 칸을 채워 봅시다

[작품이 보여주는 장면]

- 이 시는 (1)\_\_\_\_\_의 방문이라는 일상적인 사건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화자는 한 사람의 방문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그 사람의 모든 (2)\_\_\_\_\_과 (3)\_\_\_\_\_, 그리고 (4)\_\_\_\_\_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만남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의 "(5)\_\_\_\_\_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화자의 따뜻한 태도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만남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작품 분석]

- 1) 제 1-2행 에서 화자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6)\_\_\_\_\_ 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일상적인 방문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 2) 제 3-8행의 특징은 (7)\_\_\_\_\_ 시행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이 연에서는 한 사람의 존재를 시간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8)\_\_\_\_\_"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 인간의 총체성을 강조합니다.
- 3) 제9-15행에서 "(9)\_\_\_\_\_"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상징합니다. 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10)\_\_\_\_\_"라는 표현은 진정한 만남의 자세를 제시합니다.

[작품의 특징]

- 이 시는 (11)\_\_\_\_\_ 시행을 배치함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 (12)\_\_\_\_\_를 사용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 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13)\_\_\_\_\_"라는 표현은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작품의 주제]

- 이 시는 한 사람의 방문이란 그의 (14)\_\_\_\_\_ 삶과 내면을 포함하는 (15)\_\_\_\_\_ 만남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정답]

1. 누군가 2. 과거 3. 현재 4. 미래 5. 부서지기 쉬운 6. 어마어마한 7. 짧은 8. 일상 9. 바람 10. 환대 11. 짧은 12. 중의법 13. 환대 14. 전체 15. 소중함



넷째 걸음.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 '방문객'이라는 시는 기존에 다루었던 교과서가 그리 많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출 문제에 더하여, 수능 형식과 유사하게 제가 한 번 출제해 보았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나-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정현중 - 「방문객」

\*갈피: 겹치거나 포개 물건의 하나하나의 사이. 또는 그 틈  
 \*필경(畢竟): 끝장에 가서는.  
 \*환대(歡待):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1. 다음 중 이 시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 ① "부서지기 쉬운 마음"은 직유법을 통해 방문객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은 은유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는 대구법을 통해 방문의 가치를 낮추고 있다.
- ④ "어마어마한 일"은 반어법을 통해 방문의 일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는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2.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2)

- ① 방문객의 전체성을 인정하며 따뜻하게 맞이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 ② 과거의 아픔을 회상하며 현재의 만남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 ③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방문객과의 만남을 두려워한다.
- ④ 일상적 만남의 가벼움을 강조하며 즐거워한다.
- ⑤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독을 추구하려 한다.

3. ㉠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3)

- ① 형식적인 예절과 의례를 갖추어 대접하는 것
- ② 방문객의 전체성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 ③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돕는 것
- ④ 방문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하는 것
- ⑤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

4. <보기>와 위 시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

<보기>

내가 오는 길은  
 언제나 길일 것이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내가 문득 그리워질 때도  
 내가 먼저 반가워할 때도  
 모두가 길이 될 것이다“

- 박성우, '길'

- ① 두 시 모두 자연물을 통해 인간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한다.
- ② 두 시 모두 만남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③ '방문객'은 현재의 만남을, '길'은 과거의 만남을 그리워한다.
- ④ '방문객'은 타인을, '길'은 자신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 ⑤ '방문객'은 이별을, '길'은 만남을 중심 소재로 다룬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정현중, '방문객'

(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5.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

- ① 감각적 시어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일상 속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환기하고 있다.
- ③ 명령형 문장을 통해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모순된 표현을 통해 깊이 있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으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6. (가)를 읽은 독자의 깨달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6)

- ① 사람과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어.
- ② 주변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
- ③ 사람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일생과 마주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 ④ 개인의 삶은 소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 ⑤ 일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소중함을 깨달았어.

7. (가)의 화자가 보이는 삶에 대한 태도로 알맞은 것은?7)

- ① 인식과 수용의 태도
- ② 과거 지향적인 태도
- ③ 부정과 비판의 태도
- ④ 체념과 탄식의 태도
- ⑤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

8. (가)를 시상 전개에 따라 4부분으로 바르게 나눈 것은?8)

- ① 1행~2행/ 3행~7행/ 8행/ 9행~15행
- ② 1행~2행/ 3행~7행/ 8행~13행/ 14행~15행
- ③ 1행~2행/ 3행~7행/ 8행~11행/ 12행~15행
- ④ 1행~2행/ 3행~8행/ 9행~13행/ 14행~15행
- ⑤ 1행~2행/ 3행~8행/ 9행~11행/ 12행~15행

9.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9)

- ① 초월적 존재를 의미한다.
- ②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 ③ 화자가 닮고 싶은 대상이다.
- ④ 원관념을 비유하고 있는 보조 관념이다.
- ⑤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피는 존재다.

10. 위 (가) 시의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와 ㉢에 들어갈 시어가 차례대로 짝지어진 것은?10)

( ㉡ )은/는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다른 이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화자 자신도 타인과의 만남에서 ( ㉢ )처럼 자신에게 오는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여 정성껏 대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자 하는 소망을 ( ㉣ )으로 표현하고 있다.

- |      |    |
|------|----|
| ㉡    | ㉣  |
| ① 마음 | 바람 |
| ② 바람 | 갈피 |
| ③ 갈피 | 마음 |
| ④ 환대 | 바람 |
| ⑤ 바람 | 환대 |

## OX퀴즈 정답과 해설

- 1) > 정답 O 해설: -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일상적인 방문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2) > 정답 O 해설: -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 정답 O 해설: -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바람'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상징합니다.
- 4) > 정답 O 해설: - "부서지기 쉬운 마음"은 인간의 연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본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5) > 정답 X 해설: - 이 시는 자연이 아닌 '방문객'과의 만남, 즉 인간관계를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 6) > 정답 O 해설: - 이 시는 짧은 시행의 배치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7) > 정답 O 해설: - 이 시는 동일한 단어와 구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8) > 정답 O 해설: - 참고자료 (나)의 사례처럼 이 시는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9) > 정답 O 해설: - 일상적인 방문이라는 사건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만남이 지닌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10) > 정답 O 해설: - 이 시는 짧은 시행의 배치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11) > 정답 X 해설: - 참고자료 (가)에 따르면, 이 시는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맺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12) > 정답 O 해설: - 이 시는 동일한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각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13) > 정답 X 해설: - 이 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나열하기보다는, 방문의 의미와 방문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수능형 문제 정답과 해설

- 1) > 정답 ② 해설: - "바람"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2) > 정답 ① 해설: - 시 전체에서 방문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받아들이며 따뜻하게 맞이하려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 3) > 정답 ② 해설: - '환대'는 방문객의 전체성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 4) > 정답 ② 해설: - 두 시 모두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 5) > 정답 ② 해설: (가)는 일상 속에서 흔한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환기하고, (나)는 일상적 소재인 '연탄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깨달음을 제시한다. <오답 풀이> ③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 6) > 정답 ④ 해설: 화자는 '바람'과 같이 다른 이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방문객을 대할 수 있길 소망한다. 개인의 삶이나 사생활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7) > 정답 ① 해설: 화자는 '사람이 온다는 것'의 의미와 '바람'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바람'을 닮아 다른 이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방문객을 대할 수 있길 소망한다. 따라서 '인식과 수용의 태도'가 적절하다.

8) > 정답 ④ 해설: (가)의 시상 전개는 1~2행은 방문객과의 만남에 대한 깨달음, 3~8행은 방문객과의 만남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 9~13행은 방문객의 내면에 대한 이해, 14~15행은 방문객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로 나눌 수 있다.

9) > 정답 ① 해설: '바람'(보조 관념)은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다른 이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원관념)를 의미한다. 화자는 '바람'을 닮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므로 초월적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

10) > 정답 ⑤ 해설: 바람은 부서지기 쉬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화자는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바람과 같은 존재를 닮아 자신에게 오는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여 정성껏 대하는 '환대'를 하고자 한다.

